

조선 후기 문인들의 중국 문인 수용 양상---歸有光 및 顧炎武를 중심으로

당옥 (Tang Yu), 한국학중앙연구원

본 연구는 조선 후기 한국 한문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 문인 귀유광과 고염무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, 한중 문학적 교류의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. 조선 후기 한국 문단에 중국 문인들의 학문적 사상과 문학 이론이 유입되어 큰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, 귀유광과 고염무는 각각 명·청 시대의 학문적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, 조선의 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. 본고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조선 후기 문인들의 수용 양상을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,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문집에서 나타나는 귀유광과 고염무에 대한 참조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. 이를 통해, 조선 후기 문인들이 어떻게 중국의 문학적,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변용하여 자신들의 문학적 창조에 활용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. 본 연구는 "경계를 넘어, 융합과 소통의 한국학"이라는 학회 주제에 부응하며, 한국학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과 중국 간의 문학적 소통 및 융합의 역사적 깊이를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연구 결과는 조선 후기 한문학의 복잡한 내적 다양성과 국제적 교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.